

“많은 성도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손수건을 통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유럽 지·협력교회 연합 손수건집회' 소식.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더러움을 벗어 버려야 한다.

죽어지는 것이 곧 축복의 비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거두듯이, 주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려면 곧 죽어지는 것이 축복의 비결이다.

평안과 행복의 근원, 하나님~

권능의 기도로 가슴의 흑이 사라진 박인숙 권사와 온 가족이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 속에 살아가는 몰도바 바짐 보간차 성도 간증.

만민뉴스

제794호 2017년 6월 25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성령의 역사로 깨어나는 유럽의 영혼들!

프랑스 홀리갯TV 초청 '유럽 지·협력교회 연합 손수건집회'



지인을 통해 건네받은 DVD에 담긴 '2002 이재록 목사 초청 인도 연합대성회'는 그에게 영적인 충격과 감동 자체였다. 단순히 성경 지식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닌 말씀과 권능으로 영혼을 치유하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이후 2004년 이재록 목사가 독일 연합대성회를 인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참석한 그는 DVD에서 본 것이 백퍼센트 사실임을 확신하고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역사를 알리고자 방송국을 시작했다. 지난 12년간 이재록 목사의 설교와 권능의 역사를 유럽과 중동 지역에 송출해 온 프랑스 홀리갯TV 사장 제라드 웃타야쿠마르 목사의 이야기다(사진 5 맨 앞줄).

◆

지난 6월 11일(주일), 그가 담임하는 생명수교회(프랑스 파리)에서 우리 교회 이희선 목사(만민 전지교회 총지도교사)를

강사로 '유럽 지·협력교회 연합 손수건집회'가 개최되었다(사진 6). 이 집회는 기독교가 침체되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강한 유럽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살아 계신 역사를 체험하기 바라는 제라드 웃타야쿠마르 목사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생명수교회 성도들은 물론, 각종 매체를 통해 이재록 목사의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역사를 접한 뒤 인터넷과 위성으로 만민중앙교회 예배에 함께해 온 벨기에, 독일, 에스토니아, 영국, 아일랜드, 스위스, 스웨덴, 프랑스, 러시아 총 9개국의 성도들도 참석하였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권능 사역이 담긴 DVD 상영 후 우리 교회 예능위원회 소속 권능팀의 공연이 이어졌다(사진 1). 그 뒤 강사 이희선 목사는 '치료하는 여호와'(출 15:26)라는 제목으로 질병과 연약함의 차이와 질병이 오는 원인, 그리고 질병

을 치료받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회개에 대해 설교했다. 이어 회개의 시간을 가진 뒤 성도들은 성령의 새 술에 취한 듯 춤추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강사 이희선 목사는 영상을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환자기도'를 받게 한 뒤 이 목사에게 직접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200여 명의 성도들에게 기도해 주자 바로 그 자리에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 간증이 이어졌다.

◆

왼쪽다리 마비로 걸을 수 없었던 한 여성도는 성령 충만한 찬양 중에 강사 이 목사가 손을 잡고 일으키는 순간 통증이 사라지고 마비가 풀려 걸을 수 있게 되었다(사진 4). 프랑스 끌로디아 베르니악 성도는 기도받을 때 성령의 불이 다리 주변에 임해 10년 된 하지정맥류를 치료받아 잘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벨기에 디우도

네 성도는 오른쪽 어깨와 손의 통증이 기도받던 중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과 함께 사라졌다. 이 외에도 보행 장애, 고혈압, 당뇨, 감상선기능항진증 등 질병을 치료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사진 3).

이날 집회는 실황 녹화되어 홀리갯TV를 통해 유럽과 중동 지역에 위성 방송되었으며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 송출되었다. 주최측 제라드 웃타야쿠마르 목사는 "세계 최고의 목회자인 이재록 목사님의 권능을 강사 이희선 목사님이 그대로 가져온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가 치료받고 기적을 체험하였으며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6월 10일(토)에는 '유럽 지·협력교회 성령충만기도회'를 통해 지·협력교회 목회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되어 지속적인 연합 모임을 갖고자 하는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사진 2).



당회장 이재록 목사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네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3:5)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움 등 온갖 더럽고 추한 악들이 있는 ‘마음’입니다. 사람이 상상치 못할 악들이 바로 이 마음에서 비롯되어 나오지요. 하지만 구약시대에는 성령을 받지 못했으므로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적으로 육신의 할례를 하였습니다.

사람의 가장 더러운 곳은 마음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에서 제일 더러운 곳은 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신발은 어떤 곳이든 가리지 않고 다 밟고 다니기에 깨끗한 실내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더러운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2.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에 담긴 영적 의미

1)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고 거룩한 분임을 알려 주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깨끗하고 거룩한 분이므로 그 앞에 나아가는 사람 역시 깨끗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흠도 점도 없고 죄를 전혀 모르시며, 조금도 악의가 없고 오직 사랑으로만 가득하시며 온전하신 분이시지요(약 1:17 ; 히 7:26 ; 요일 1:5).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시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습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성결한 분이므로 우리 마음도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기를 소원한다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온전히 닮아 빛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빌 2:5).

2)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마음의 더러움을 벗어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

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말씀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지만 마음속에 있는 악들이 벗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진리에 위배되는 것들을 계속 씻어야 하지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배운 것을 행함으로 비진리들을 버려가야 합니다. 진리를 깨우치는 만큼 죄를 버려가게 됨으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악을 버린 만큼 성결되며 마음이 청결해진 만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 나가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신발을 벗듯이 마음의 더러움을 벗어야 합니다. 혹여 1년 전과 1년 후 자신의 마음이 더욱 성결되지 못하고 변화가 없다면 그만큼 허송세월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야 합니다.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리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다면 마지막 심판 때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우리 마음의 더러움을 신속히 벗어버려야 하겠습니다(눅 19:11~27).

3) 마음의 더러움을 벗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명하셨을 때 만일 모세가 신을 벗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을까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그 음성 순종해 나갈 때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아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반드시 신을 벗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발에서 신을 벗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40년간의 연단을 통해 낮아지고 낮아진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모든 것을 깨우칠 수 있었지요. 신을 벗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

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발에서 신을 벗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모세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 중심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밖에 없었지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출 3:6)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조상들의 이름을 일일이 들어가며 자신을 나타내셨을까요? 모세가 자신의 선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와 그의 조상이 믿었던 하나님이시며, 그의 조상들과 함께하시고 그들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약속에 신실하신 분임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전지전능하시고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거룩함 앞에 어찌 더러운 신을 벗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비진리를 벗어 버리고 더욱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사명자를 부르시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은 한 번 벗고 마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벗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지만, 온전히 주님의 성품을 닮기 위해서는 매일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며 발 견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불같이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입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벗어 버려야 하지요(딤후 4:5). 그리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지도자를 세우고자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양치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에 모세가 가까이 다가서자 하나님께서는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네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에 담긴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1.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이유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선 땅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므로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라고 했듯이 주님을 영접하여 성령을 마음 안에 모시는 순간부터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몸에서 가장 더러운 곳은 시기, 질투, 미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일월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는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한 알의 밀처럼 온전히 죽어지는 축복의 비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듯이(요 12:24)
믿음 안에서 온전히 죽어지는 축복의 비결에 대해 살펴본다.

자아(自我)가 죽어야 한다

‘자아’란 나, 자기를 일컫는 말로 이는 사람이 태어나 성장하면서 부모 형제나 선생님, 친구, 이웃 등 다양한 환경을 통해 보고 듣고 경험하며 쌓은 지식과 교양으로 형성된다. 그런데 자아는 대부분 비진리에 속하기 때문에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진리로 바뀌가며 내가 옳다 하는 것이 다 옳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진리에 위배되는 생각과 이론이 발견되면 즉시 자기가 옳지 않음을 인정하고 진리로 변화시키기 위해 힘써야 한다. 이것이 자기가 죽어지는 시작점이다(롬 8:13). 마음의 비진리는 대충 회개한다고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불같은 기도를 할 때 죄를 버릴 수 있는 능력을 받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불세례로 태워 버릴 수 있다.

날마다 자기가 죽어지며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려 나갈 때(히 12:4),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신다. 자기가 죽어지는 만큼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니 만사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처럼 영의 열매를 맺으려면 육으로는 죽어야 한다(고전 15:42~44).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말씀하셨으니 온전히 죽어져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열매를 맺기 바란다.

가정에서 죽어야 한다

가정 복음화를 이루려면 천국 복음과 하나님의 살아 계신 증거들을 가지고 전도해야 한다. 이것이 가족에게 받아들여 지려면 신뢰를 얻어야 하는데, 바로 가정에서 자신이 어떻게 죽어지느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말씀하셨다. ‘구습’이란, 하나님을 만나기 전 ‘옛 사람’일 때 몸에 배어있던 좋지 않은 습관들이다.

예를 들어, 험기가 많아 작은 일에도 화를 쉽게 내거나 손찌검을 하는 경우, 엄마가 해 주는 게 습관이 되어 자기 방이 아무리 어질러져 있어도 청소하지 않거나 바쁘다는 핑계로 자고 난 이부자리 하나 정리하지 않고, 벋은 옷은 내버려 둔 채 외출하는 등 결여된 모습들이다.

이러한 구습들이 사라진다면 ‘교회를 다니더니 정말 달라졌구나.’ 하고 가족이 가장 먼저 크게 변화를 느낄 수 있다. 눈에 띄는 구습을 벗는 만큼 가정에서 죽어질 수 있고 가족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복음화를 이룬 가정이라도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각 사람이 진리 안에서 죽어진다 가정의 행복 지수가 달라진다.

교회 안에서 죽어야 한다

혈육으로 맺어진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바로 주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이다. 이들은 이 땅에서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함께할 믿음의 형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기가 살아 있는 사람은 상대의 허물을 볼 때 자기 의로 상대를 지적하기도 하고 상대의 허물을 전하기도 한다. 더욱이 상대로 인해 자신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더욱더 용납하지 못한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얼마나 죽어지는 밀알이 되었는지 알 수 있는 척도 중 하나가 바로 ‘화평’이다.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기 틀을 고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기 어렵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섬기며 사랑과 덕으로 대한다면 모두와 화평하여 하나 될 수 있다.

만일 자신에게 잘해 주는 사람에게는 잘해 주고, 자신을 섬기고 순종 잘하는 사람과는 화평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화평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화평을 이뤘다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기 원하신다. 또한 상하 관계 속에서 질서를 따라 순종과 섬김으로 화평을 이루며 소속된 모든 분야에서 사랑으로써 화평을 이루기 바란다. 하나님께서는 화평을 좇는 사람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이다(약 3:18 ; 고전 14:33).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죄로 인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은 성도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다(행 1:8).

성도들이 착한 행실로 세상의 빛이 될 때 사람들이 빛이신 하나님을 찾는다. 또 주의 일꾼들이 전도된 영혼들을 갈무리하며 믿음의 헌신과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을 이루게 된다.

진정 주님의 사랑을 깨우친 성도들은 전도하는 일이나 영혼들을 갈무리하는 일을 수고롭게 여기지 않는다.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자원함으로 감당하게 된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죽어지는 것이다(롬 8:17).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자아가 죽어지고,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어진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이다.

7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7.6.25~7.1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창세기 강해 8-14
- 사랑장 13-18
- 의와 틀을 깨뜨리자 1
- 심계명 10
- 공부 잘하는 비결 5-8
- 신앙생활 쉽게 하기 1-2
- 믿음을 책망하시니 15-21
- 안식일을 기록히 지키라 1-4

GCN TV 설교

- 간절함 (이수진 목사)
- 영의 세계 66 (이희선 목사)
- 용기 강해 24 (신동초 목사)
- 만나 (정규영 목사)
- 성결을 향하여 (조희희 목사)
- 두 짐승 1 (김승신 전도사)

예능 프로그램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다시해보기 2)
- 권능 스페셜 2
- 창조와 과학 19
- 모두 드려요 53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76
- 옛날 옛적에 (시즈) 2
- 마지막 때 5
- English 2
- 내 마음의 천양 33

해외성회 프로그램

- 회상 4
- 이스라엘 연합대성회 1
- 믿음으로 걸어온 길 26

전국 어디서나 **allah tv 882번** | 세계 어디서나 **RokuTV**

“만민을 만난 뒤, 저희 가정은 권능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바짐 보간차 성도 (33세, 몰도바)

2015년 봄, 알렉산드르 형제로부터 급성폐성심으로 죽어가던 어머니가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로 소생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도 주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지요. 이후 교회에 나와 GCN방송을 통해 들은 당회장님의 설교는 너무나 특별했고 큰 감동이 되었으며, 제 삶에 성결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말씀은 지식에 그치지 않고 제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예전에는 자녀들이 자주 아파서 병원에 수시로 드나들며 약을 많이 먹고 주사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닌 뒤로 가족 모두가 어떤 약도 먹지 않고 병원도 가지 않게 되었지요. 당회장님의 기도로 질병을 신속히 치료받은 체험을 통해 믿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할 무렵, 생후 4개월 된 막내아들이 모유를 먹으면 바로 토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3일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견디다 못해 병원에 가자고 했지요.

저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라 믿었지만 아내를 설득할 방법이 없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 일이 앞으로의 믿음생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 느꼈기에 저는 힘없이 축 늘어진 아이를 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라고 말이지요. 지켜보던 아내가 웬일인지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여 되돌아왔지만 아이의 상태는 계속 좋지 않았고 아내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며 응급차를 부르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모유를 한 번 먹여보라고 권유를 하였지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3ml만 먹어도 토하던 아이가 모유를 배불리 먹은 뒤 전혀 울지 않고 토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후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 주변에서는 무엇을 먹었기에 아프지도 않고 성장하느냐고 묻곤 합니다. 이 외에도 두통, 치통, 고열, 기침, 설사, 종기 등에 이르기까지 어떤 경우라 해도 먼저 회개한 후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거나 권능의 무안단물(출 15:25)을 바르면 다 치료가 됐지요.

뿐만 아니라 큰 딸 밀레나(6세)는 교회 다니기 전부터 가끔 잠을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 소리를 지르며 두려움에 떠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부모를 못 알아보고 거의 10분 정도가 지난 후에야 정상으로 돌아오곤 했지요. 그래서 딸과 함께 저희 부부는 매일 밤 잠자기 전에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받았는데 이후 그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도 뇌진탕을 크게 일으킨 뒤 두통이 잦았지만, 교회에 다닌 후에는 두통을 치료받고 아내와 다툼이 사라지며 가정도 화평해졌지요. 저희 가족을 항상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명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5층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시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사산만민교회 충남 사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들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조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영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2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산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경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학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이천시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D ☎031)905-2419, 010-2276-101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로 가슴의 혹이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박인숙 권사 (55세, 2대대 21교구)



2016년 여름, 외출했다 돌아 오면 몸이 지쳐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었습니다. 잠시 누워 기운을 회복한 뒤에야 다시 움직이곤 하였지요. 이후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가슴에 혹이 있는데 큰 편이니까 3개월 뒤 초음파를 다시 찍어 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수많은 성도가 갖가지 질병을 치료받는 것을 보아왔기에 저는 믿음으로 치료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님께 기도받은 뒤로는 피곤한 증세가 사라졌지요.

그런데 12월경 다시 병원을 찾아 초음파 검사를 해 보니, “혹이 자라지는 않았지만 무시할 수 있는 크기는 아니니 3개월 후에 다시 보고 조직검사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궁구하며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변화하고자 노력하였지요. 뿐만 아니라 온 집에 중성하고자 분야분야를 돌아보며 마음을 쏟아 응답의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이윽고 2017년 3월 20일,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하였는데 여전히 혹이 있었습니다. 혹이 커진 것은 아니지만 조직검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검사 날짜를 잡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지요.

저는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배 때마다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닷새가 지난 3월 25일, 조직검사를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 대기실에 앉아 진료를 기다리던 중 웬지 모르게 긴장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GCN 방송에 접속하여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받고 나자 마음이 이내 평안해졌지요. 제 차례가 되어 진료실에 들어가자, 의사는 며칠 전 촬영한 초음파 사진이 띄워진 화면을 보며 “여기 혹이 있네요.” 하고 혹의 위치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직검사를 위해 마취주사를 맞고 잠시 침대에 누워있던 제게 의사와 간호사의 당황하는 목소리가 들렸지요.

“여기 혹이 어디 갔지?”
“어! 진짜 어디로 갔지요?”
다시 초음파 검사로 확인하는데 혹이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의사는 “혹이 정말 없어졌네요!”라고 제게 말했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혹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후 ‘순간에 혹을 사라지게 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죄성들도 성령의 불로 순간에 태워주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니 성령의 소망으로 더욱 충만해졌습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초음파 사진 >>>



▲ 기도받기 전 : 좌측 유방 6시 방향에 1.09 cm 크기의 종괴가 보이고 있음.



▲ 기도받은 후 : 좌측 유방 6시 방향에 종괴를 찾을 수 없음.



▲ 기도받기 전 : 좌측 유방 3시 방향에 0.41 cm 크기의 종괴가 보이고 있음.



▲ 기도받은 후 : 좌측 유방 3시 방향에 종괴를 찾을 수 없음.